

Richelieu 의 言論政策과

La Gazette 에 관한 小考

학 관 식

<目 次>

- | | |
|-------------------------------------|--|
| 1. 프랑스 近代新聞의 成立背景 | 4. 프랑스 最初의 定期週刊新聞에
관한 Hatin 의 學說과 이에 挑戰
한 새로운 學說 |
| 2. Richelieu 의 一般政策과 言論政策 | |
| 3. 定期週刊新聞인 La Gazette 의
出現과 그 性格 | |

1. 프랑스 近代新聞의 成立背景

新聞의 발행은 製紙術과 印刷術, 郵遞制度의 확립에 비롯한다. 新聞用紙와 이것을 印刷할 活字, 그리고 뉴스를 수집·보급할 使者(郵遞)가 없는 곳에 新聞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프랑스의 製紙術은 1348年 헌집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보다 먼저 羊皮紙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것은 너무나 값비싼 것이어서 그 보급이 지극히 제한 되어 있었다. 300部の 新聞을 發行하려면 300마리의 羊皮가 필요하였다. 이것은 價格도 價格이러니와 실로 대단한 살육이다. 이에 비하면 헌집은 구하기도 쉬우러니와 價格도 싸다. 그러기에 1348年의 技術革新은 新聞發達을 위하여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製紙術의 革新도 印刷術이 밀바침되지 않는 한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다. 1440年까지만해도 活字대신에 기러기 깃으로 만든 펜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야만 했다. 이러한 前近代의인 方法에서 탈피하여 印刷機에 의한 印刷가 始作된 것은 1450부터이다. 1450~1455年 사이에 몇몇 곳에 印刷機가 보급되어 公衆을 대상으로 하는 記事문과 프라카드가 발행되었고 1498년에는 Bulletins d'Italie가 發行되었다.

한편 郵遞制度는 1464年 6月 19日 Louis 11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칙령 1條에 「王과 領主는 統治上 뉴스를 신속히 안다는 것이 지극히 중요함을 인식, 명령을 신속히 하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웃 마을의 소식을 신속히 전해들을 수 있는 驛馬를 마을마다 두기로 협의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郵遞制度는 애당초부터 國事만을 맡아 했다. 칙령 9條에는 王이나 驛遞大張의 명령 없이 私務에 驛馬가 이용되던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新聞은 이른바 官報라는 형태로 뉴스의 수집과 그 보급이 가능하였다. 郵遞制度가 郵遞事務의 定期성을 확립한 것은 1576年 Henri 3의 칙령에 의해서다. 郵遞料는

거리에 의해 환산하지 않고 비용(charge)에 비례하여 결정하였다. 이 때부터 定期性에 관한 思想이 습관에 배기 시작하여, 통신원들은 社會的 커뮤니케이션을 풍부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하여 定期的 新聞이 發行될 수 있는 先行條件인 郵遞制度의 定期性은 확립되었으나, 驛馬의 신속성은 18세기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왜냐하면 道路가 12세기와 똑같은 것으로 아무런 개선이 없었던 탓이다. 16세기初 이태리에서 四輪馬車를 수입하여 驛馬의 신속성을 살리려 하였으나 구태의연한 道路事情으로 인하여 프랑스 大革命까지 여전히 불변하였다.

그러나 郵遞制度는 宰相 Richelieu에 의하여 또 한번 크게 쇄신, 진전되었다. 그는 1629年 칙령으로 모든 官吏들의 公務처리는 特使에 의존하지 말고 郵遞制度를 利用할 것을 명령하였고, 1630年부터는 郵遞事務의 조직망이 파리뿐만 아니라 地方에도 구체화되었다. 이보다 앞서 1627年의 칙령으로 파리로부터 출발하여 Dijon, Lyon, Toulouse, Bourdeaux까지의 4個 定期郵遞 조직망을 확립했음도 定期新聞發行을 가능케한 획기적인 사실이다.⁽¹⁾

살펴 본 바와 같이 製紙術, 印刷術, 郵遞制度는 15世紀末에 이미 그 면모를 갖추어 定期週刊新聞이 發行될 條件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사실상 定期週刊新聞이 創刊된 것은 1631年에 이르러서다.⁽²⁾ 定期週刊紙가 이처럼 時期的으로 늦은 理由를 Madeleine Varin D'Ainville은 「Public의 缺如」에 돌리고 있다.⁽³⁾ 情報을 필요로 하는 商人, 都市人, 軍人, 聖職者, 官吏, 王族 등의 Public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⁴⁾ 이 當時 이들 Public은 自然發生的이고도 費用이 많거나 저렴한 커뮤니케이션——對話, 揭示, 편지통신, 小冊子, 宣傳冊子——만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이다.

現實性 있는 情報을 알려는 불타는 好奇心을 지닌 Public이 형성된 것은 salon의 유행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salon은 여가를 창조하는 社會生活의 한 형태로서 貴族 文化의 所産이다. 여기에 출입하는 者들은 情報에 밝을 뿐 아니라 남보다 먼저 情報을 입수해야만 貴族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였다. 이러한 풍조는 定期新聞을 결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public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定期新聞을 發行함에는 그 費用이 보상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했다. 이른바 豫約購讀者가 필요했던 것이다. salon에 출입하는 者들은 社會的 身分과 教育水準이 높고 財力도 있어 新聞을 豫約購讀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salon 풍조가 『본체도에』오른 것은 宗教的 混亂期(1559~1589) 이후와 Louis 13時代인

(1) Madeleine Varin D'Ainville, La Presse En France (Genèse et évolution de ses fonctions psycho-sociales), 1965. pp. 50~53.

(2) Charles Ledré, Histoire De La Presse, 1958, pp. 27~28; 1631年 初 Nouvelles ordinaires de divers endroits 라는 定期週刊新聞이 發行되었고, 같은 해 5月에는 역시 같은 定期週刊新聞인 La Gazette가 創刊되었다.

(3) Madeleine Varin D'Ainville, op. cit., p. 53.

(4) Charles Ledré, op.cit., pp. 15~16.

바⁽⁵⁾ 이 것이 定期週刊新聞의 創刊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은 의심할 수 없는 事實이다.

2. Richelieu의 一般政策과 言論政策

프랑스의 絶對主義가 確立된 것은 Louis 13의 宰相 Richelieu(1585~1642) 時代였다. Louis 13은 幼少하였으므로 母后 Maria de Medici가 攝政으로 등장했다. 熱烈한 舊教徒인 Maria의 支配를 겁낸 新教徒와 王權의 弱體化를 보고 封建的特權을 強化하려고 나선 大貴族들은 相互聯合하여 또다시 攝政時代에 反抗을 시작하였다. 그후 Louis 13의 親政은 攝政王后派와 市民層의 反對를 받아 國政은 支離滅裂하였다. 이런 尙하 아래서 1624年 王과 攝政과의 調停에 成功하여 그 功으로서 宰相이 된 者가 Richelieu였다.

그는 이 때부터 18年間 事實上的 王權의 支配者로서 王權強化에 專念하였다. 「新教徒를 壞滅하고, 大貴族의 誇負를 打破하고 모든 人民들 그 義務에 服從시키고, 國王의 이름을 그 當然의 地位까지 諸國民間에 높이는 것에 全精力을 集中할 것」을 그는 國王에 約束하였다. 18年間 그는 이 約束을 實現하기 위하여 세간의 反感을 무릅쓰고 가진 수단을 다 하였다.⁽⁶⁾ Richelieu는 軍隊·官僚機構를 整備하기 위해서 地租의 增徴, 新稅의 創設을 強行하였으며, 더우기 그의 對外戰爭 수행을 위한 막대한 戰費調達은 가혹한 國民의 血稅로 充당해야만 했으므로 國民의 불만은 대단하였다.

실로 Richelieu에게 挑戰하는 國民大衆의 抵抗은 적지 않았다. 各地의 農民·手工業者大衆의 農民戰爭과 沒落하는 「유그노」 下級騎士層反對派의 抗拒가 그러하였고, 地方名門貴族의 民權運動과 高等法院의 反抗 또한 그러하였다.⁽⁷⁾

드디어 Richelieu의 政策에 불만을 품은 反對派들은 地下新聞을 發行하여 政府를 정면으로 公박하기 시작하였다⁽⁸⁾. Richelieu는 매우 强경한 公박을 받았고 또한 이에 맞서 적지 않은 방어도 하였다. 실로 言論攻防戰이 치열했다. 反 Richelieu 論爭者(Polémiste)들은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으며, 악착스럽고도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그 代表的인 人物로는 Chanteloube와 Morgue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Richelieu는 이들 反對派의 言論攻勢에 反擊을 加하고, 自身の 國內外政策에 대한 國民의 支持를 얻고자 「팜프렛」을 통해 親政府的 言論造成團을 組織하였다. 이들은 反 Richelieu派의 特定人物을 公박하기도 하고, 또는 Richelieu의 一般政策을 지지하는 「팜프렛」을 著術하기도 하였다. 이 言論造成團의 구성원은 매우 많았다. Richelieu의 海外政策을 支持하고 나선 Jérémie Ferrier, 絶對主義에 관한 理論家이며 Protestant와의 論爭에 맞선 Jean de Silhon, 反

(5) Madeleine Varin D'Ainville, op. cit., p. 54.

(6) 金成燾. 近代西洋政治史, 白映社, 1958, pp. 28~29.

(7) 金玟河, 佛蘭西 絶對主義에 관한 研究, 政治論集 創刊號(中央大學校), 1969, p. 31.

(8) Kenneth E. Olson, The History Makers,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66. p. 169.

Richelieu 派인 Mathieu de Morgues 와의 論爭에 나선 Père de Sancy, 그리고 教授이며 辯護士인 Daniel de Priézac 등이 활약했다.

그러나 時期로 보아 가장 最初의 人物이요, 가장 有明한 사람은 Fancan 이었다. 論爭者 (polémiste)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그는 Richelieu 의 對外政策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독일, 영국 등의 外國에 特定個人이나 王族들과 유대를 맺고 各種情報를 수집하였다. 그는 풍부하고도 뚜렷한 思想과 情報로서 박력있고 신랄한 文體로 意見을 전개하였다. 그는 宥和할 수 없는 나라 스페인을 프랑스의 영원한 敵으로 간주하고 淸教徒諸侯들과의 동맹을 주장하였다. 또한 Richelieu 의 對外政策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Le Père Joseph 도 빼놓을 수 없는 人物이다. 그는 Mercure française 의 편집자로서 혹은 論爭者로서 對外政策에 관한 Richelieu 의 의견을 열렬히 支持했다.⁽⁹⁾

살펴 본 바와 같이 Richelieu 는 自身에게 유리한 言論政策을 爲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팜프렛」이라는 不定期한 刊行物 보다는 定期性을 띤 刊行物이 要請된 것도 事實이다. 그리하여 官報로서의 定期週刊新聞이 出現하기에 이른다. 이에 관한 고찰 없이 Richelieu 의 言論政策을 설명 할수는 없다.

3. 定期週刊新聞인 La Gazette 의 出現과 그 性格

1631年 5月 30日 Théophraste Renaudot 는 國王 Louis 13世로부터 100年間の 獨占權을 얻어 定期週刊新聞인 La Gazette 를 創刊하였다.

Renaudot 는 본시 新敎信者이며, 博學한 醫師로 Richelieu 와 親交를 맺게 되자, 그 연고로 國王의 典醫가 되었다. 1630年 그는 國王의 許可를 받아 “萬事問議處”(Bureau d'Adresse) 를 開設하였고, 이 밖에 國營貧民救濟事業所, 學校, 職業紹介所, 典堂舖 등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萬事問議處”는 情報과 廣告의 集散所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여 情報의 去來를 하였다.⁽¹⁰⁾ 여기에 3 Sous 만 내면 求人·求職을 할 수 있었고, 求人·求職을 明示한 장부도 3 Sous 만 내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貧民에게는 무료로 봉사해줬다.⁽¹¹⁾ 이리하여 각 지방에서 모여들은 사람들의 지방소식과 이야기거리를 記錄하고 筆寫해 두는 새로운 착상에 눈이 뜬 그는, 마침내 많은 需要에 응하기 위하여 이의 印刷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다시 변모하고 커져서 1631年 5月 30日에 드디어 La Gazette 란 新聞으로 발전된 것이다.⁽¹²⁾

이 新聞은 처음부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선하지는 않았다. 王과 Richelieu 의 비호를 받고 있던 Renaudot 는 當局에 도움이 되는 특히 反오스트리아의인 當局의 對外政策에 도움이 되는 新聞을 구사해보려 하였다. Renaudot 의 말에 의하면 그는 세상에 나도는 그릇된 풍문

(9) Emile Bourgeois Et Louis André, Les Sources De L'Histoire De France, XVII^e Siècle (1610~1715), IV Journaux Et Pamphlets, 1924, pp. 213~16.

(10) 林根洙, 新聞發達史, 正音社, 1967, p. 96.

(11) Charles Ledré, op. cit., p. 32.

(12) 林根洙, op. cit., p. 96.

대신에 정확한 뉴스를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밝게 할 것이며, 또한 商人, 軍人, 기타 많은 사람에게도 정확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바른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¹³⁾ 즉 정확한 事實報道를 통하여 社會內的 不協和音과 동요의 요인이 되어 온 낭설·풍문 등을 제거하고, 그러므로써 商人들이 포위된 都市나 폐허가 된 都市에서 더 이상 商品製造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군인들은 전쟁이 없는 都市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Renaudot는 그의 新聞의 편집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장군들은 이 新聞에서 매일 매일 전쟁과 포화공격 혹은 도시점령 기사를 찾을 것이고, 포로의 기소 기사를 읽을 것이다. 信仰心 깊은 사람들은 설교목사의 이름과 참회聽聞司祭의 이름을 찾아 읽을 것이다. 궁정의 신비를 전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은 또한 세밀한 궁정비밀을 찾아 읽을 수 있을 것이다.⁽¹⁴⁾ 위에서 Renaudot는 戰爭記事, 王에 관한 記事, 宗教記事에 힘주어 편집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 밖에도 官吏의 任命, 受賞, 經濟, 社會, 文化等 광범위한 記事를 다루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論評없는 事件(événement)의 단순한 羅列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量도 적었다. 더우기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當時 사람들의 “事件”에 관한 概念이다. 오늘날 “事件”이라 하면 外交·軍事 關係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經濟, 社會의 것도 망라되고 있다. 그러나 Renaudot 當代의 사람들은 이와는 달리 支配階級の 行動自體를 “歷史的”이고도 “事件的”이라는 생각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 歷史란 全社會的인 記錄이 아니라, 王과 그 주위 人物, 이른바 支配階級에 관한 記錄이라는 것이다. Renaudot는 1631年 La Gazette에서 上記의 理論을 다음과 같이 뒷바침 해주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이 땅의 王과 支配階級을 위한 新聞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 支配階級에 依한, 支配階級을 위한 것이며, 其他 人物은 그 支配階級에 봉사하는 한낱 「악제사리」에 불과한 것이다.』 歷史는 凡人에 의하여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支配階級에 의하여 기록된다는 것이 그 當時 사람들의 歷史概念이었다.

다음은 當代 사람들의 이런 思考方式을 염두에 두고 La Gazette의 記事를 몇개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보자. 1631年 총 기사수 620 중에 戰爭記事 外交使節, 궁정의 事件이 470를 차지하고 있어 약 75%를 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50에 불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나뉘어 진다.

궁정, 사교계 記事 20;
 王妃의 행차
 Richelieu 領地建立
 Parme 公妃의 産期前分娩
 Oriac 백작 骨折傷
 結 婚
 出 生

(13) Charles Ledré, op. cit., pp. 32~33.

(14) Bernard Voyenne, La Presse Dans la Société Contemporaine, 1962, p. 38~39.

호화관 「리셉션」

空席과 任命(주로 宗教界) 15;

宗教界 記事 15;

奇蹟

모독적인 행위와 그 罰

宗教儀式

基督教信徒 迫害 中止한 日本 皇帝

社會面記事 10;

노상강도

絞首刑

訴訟

經濟記事 10;

매니스 銀行記事

기타 食品 단속 기사

文化面 記事 10;

「발레」 「스케치」 記事 2, 1은 Savoye 樞機卿의 下人の 「발레」이고, 다른 하나는 Bruxelles에서 열린 4명의 스페인 「발레」團에 관한 것.

銅大砲 發明

聖經出版

日記關係 記事 數個;

더 위

洪水

其他 雜報 20;

占星家の 豫言

毒殺

Maroc 王의 藏書 盜難

이태리에 傳染病

머리 하나에 얼굴 2개의女兒 出生

Dantzic에서 魔術사 燒死

포도주 한 잔에 시비

이 新聞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特色은 프랑스 뉴스는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最初의 프랑스 뉴스가 실린 것은 1631年 7月 4日, 第 6號이다.

『1931年 7月 3日, 파리發信: 15日前부터 또 다시 만연된 熱病으로 Berger, Bragelonne, 그리고 파리의 가장 유명한 醫師인 Monsieur Charles가 死亡하였다.』

1631年 7月 11日字 La Gazette 第 7號에는 一種의 雜報인 地方소식이 실려 있다.

『Rouen에서 11名이 結婚式에서 死亡하였다. 動機: 덴스도중 말다툼.』

1631年 8月 8日字 La Gazette에는 政治記事가 실려 있다: 여기서 王后가 高等法院(Parlement)에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그 內容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¹⁵⁾

(15) Madelaine Varin D'Ainvelle, op. cit., pp. 80~8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Renaudot는 軍事·外交·宮廷關係 記事에 치중하였으며 外國 記事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國內 關係 記事를 싣도록 認定이 되지 않았으나, 當局으로부터 그것이 認定된 것은 겨우 第6號부터 이다.

이 新聞은 Renaudot가 천명한 바와 같이 「곧잘 社會의 동요와 폭동의 도화선이 되어온 허위와 풍문을 불식시켰고, 支配階級을 위한, 支配階級の 新聞이었다. 이런 효과를 노린 Richelieu는 그의 內外的인 과감한 政策과 그에 따른 血稅徵收로 야기된 國民의 反政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說明한 親政府 言論造成團 보다는 보다 組織的이고 定期的인 週刊新聞이 機關紙로서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 Renaudot의 要請에 따라 100年間的 獨占特許를 허락 해준 것이다. 바로 La Gazette는 Richelieu의 機關紙요, 代辦紙로서 「親政府의 言論造成 機關의 前衛의 구실을 다하였다. 이를 뒷바침 하여주는 論理的 근거로서 다음 사실을 지적한다.

Richelieu 治下에서 高等法院(Parlement)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訴訟에 이긴 적이 있다. 이 때 La Gazette는 침묵을 지키거나 기껏해야 한토막 記事를 싣었을 뿐이었다: La Gazette는 모든 “事件”을 王에게 有利하게 解釋하려 노력한 것이다 (高等法院은 中央集權의 王權에 끈덕진 反抗을 하였음). 1648年 8月 26日, 王命으로 결정된 稅金引上에 反對한 主動세력인 高等法院의 主要人物 Brussel를 체포하였을 當時, La Gazette의 政府機關紙의 性格은 明白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王后는 부르좌지市民軍에 高等法院의 폭도를 진압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이들 市民軍은 高等法院勢力에 가담하고 말았다. 이 時期야말로 파리市民들의 革命日이었다.⁽¹⁶⁾ 이 때 La Gazette는 어떻게 報道하였을까? 파리의 동요에 관해서는 一言半句도 없는 반면, Brussel 체포 성공에 관해서는 무려 28페이지에 달해서 報道하였던 것이다⁽¹⁷⁾.

La Gazette의 創刊者인 Théophraste Renaudot와 實質上의 統治者인 Richelieu의 뿔 수 없는 親分關係나 혹은 La Gazette가 創刊되기 까지의 經路를 보아 이 新聞의 機關紙의 性格은 뚜렷하다. 따라서 이 新聞은 創刊 當時부터 權力에의 忠實한 복종기관이었음은 물론, 그 記事는 當局의 뜻대로 檢閱·校正되었다.⁽¹⁸⁾ 그 위에 王과 Richelieu는 文書(Papiers)와 意見書(notes)를 Renaudot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公表하기를 願하는 것을 발췌 혹은 전체를 新聞에 실게 하였다.⁽¹⁹⁾

『폐하는 또 다시 Renaudot에게 意見書를 보내노라』⁽²⁰⁾, 『이 行動에 관하여 나의 설명서가 하달될 때까지 公表하지 말 것을 Renaudot에게 命す하노라』⁽²¹⁾

(16) E. Lavisse, Histoire de France, t. VII, 1^{er} Partie, p. 39, cité dans Varin D'Ainvelle, La Presse en France.

(17) Madeleine Varin D'Ainvelle, op. cit., p. 83.

(18) Ibid, p. 80.

(19) M. Cucheval Clarigny, Histoire de la Presse (en Algèrterre et Aux Etats-Unis), Paris, 1857, p. 13.

등의 의견서 전달 혹은 명령으로써 國王 自身이 La Gazette 편집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王은 또한 La Gazette의 愛讀者였으며, 손수 글을 쓰기도 하였다. 宰相 Richelieu의 뒤를 이은 Mazarin도 Renaudot를 物心兩面으로 도와 주어 王室紋飾의 上部의 冠을 標題에 使用하도록 하였고, 1762년에는 題號도 La Gazette de France라 改稱하여⁽²²⁾ 名實共히 政府機關紙의 性格을 드러냈다.

또 한가지 빼 놓을 수 없는 이 新聞의 特徵的 性格은 17世紀 新聞이 一般的으로 그렇듯이 小數를 위한 「엘리트」的 新聞이라는 것이다. 高價의 豫約購讀料(年購讀料: 小活字; 12 livres. 大活字; 24 livres. 書籍商에서 빌려 읽는데 月 30 sols)와, 內容과 어휘의 난해로, 富와 知識 程度가 높은 「부르좌지」的 「엘리트」가 아니면 이 新聞을 購讀할 수 없었다.⁽²³⁾ 때문에 이 新聞은 發行部數(1638年 1,200部)가 국한되어 있는⁽²⁴⁾ 「엘리트」를 위한, 「엘리트」의 新聞 性格이 뚜렷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첨가할 수 있는 La Gazette의 特性은, 創刊 當時의 各國 週刊新聞이 한결같이 뉴스 報道本位의 編輯을 보여 준데 반하여, La Gazette만이 世界 最初의 政論 新聞으로 出發하여⁽²⁵⁾ 1789年 프랑스 大革命時까지 정간 없이 계속 發行되었다는 事實이다.

4. 프랑스 最初의 定期週刊新聞에 관한 Hatin의 學說과 이에 挑戰한 새로운 學說

Hatin은 新聞史研究와 Renaudot의 業績研究에 生涯를 마친 權威있는 學者였다. Hatin은 프랑스 最初의 近代的 定期週刊新聞은 Théophraste Renaudot의 La Gazette이며, 따라서 Renaudot는 近代新聞의 創始者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Hatin의 學說을 疑心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Hatin의 精密한 研究와 權威를 믿었기 때문이다. 모든 資料는 Hatin에 의하여 모조리 調査되었고 檢討되었으므로 적어도 Renaudot와 La Gazette에 관한 限 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때문에 Hatin 이후 수 많은 著書가 나왔으나, 독자적인 노력으로 原資料를 再調査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다만 Hatin의 說을 引用만 해왔던 것이다.

그러기에 創刊 當時의 「週刊당나니」(Vaurien hebdomadaire), 「週刊방탕야」(Polisson à la semaine) 등의 불명예스런 지탄⁽²⁶⁾도 아랑곳 없이, 1893年 여름 그가 일해온 舊 Calandre街

(20) Avenel, Richelieu et La Monarchie Absolue, t.I. 1884, p. 160, cité dans Varin D'Ainvelle, op. cit.

(21) Ibid.

(22) 林根洙, op. cit., p. 97.

(23) Madeleine Varin D'Ainvelle, op. cit., pp. 88~89.

(24) François Fourastié, L'Education Nationale, no19, 24 mai 1962, citée dans M. Varin D'Ainvelle, op. cit.

(25) 林根洙, op. cit., p. 97.

(26) Giberte et Heny Coston, Le Journalisme en Trente Lecons, 1960, p. 13.

에는 Théophraste Renaudot의銅像이 建立되어 萬人의 존경을 받아 왔던 것이다.⁽²⁷⁾

지금까지 알려진 最初의 프랑스語 定期週刊新聞은 Courant d'Italie et d'Almaigne (1620年과 1621年分の 數號가 發見되어 보관중)이다. 그러나 이 新聞은 프랑스 고유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Amsterdam에서 印刷한 이 新聞은 Hollande에서 發行하고 있던 2種의 週刊新聞인 Corantos 중의 하나를 번역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Renaudot가 지금까지 누려온 프랑스新聞의 元組로서의 영광이 흔들리고, Hatin의 學說이 정면으로 挑戰을 받게 된 것은 Folke Dahl, Fanny Petibon et Marguerite Eculet의 Les Débuts de la Presse Française (「프랑스新聞의 出現」)이 1951년에 發表되면서 부터이다. M. Folke Dahl은 스웨덴의 圖書館員이었다. 그는 Stockholm에서 Renaudot의 新聞몽치에서 Nouvelles Ordinnaires de Divers Endroits라는 題號를 가진 新聞을 發見하였다. 이 新聞에는 1631年 10月 31日字印이 찍혀 있으며, 紙畧은 42號로 되어있다.

이에 이어 파리 國立圖書館 관리인인 Mlle Petibon이 역시 같은 新聞인 Nouvelles Ordinnaires de Divers Endroits를 發見하였다. 이 新聞은 1631年 7月 17日부터 12月 19日까지의 紙畧 27號~49號에 해당하는 23部였다.

이것으로서 Hatin의 學說은 무너지고, La Gazette의 프랑스 最初의 定期週刊新聞으로서의 영광도 꺾인 것이다. La Gazette 이전에 이미 많은 紙畧을 낸 定期週刊新聞이 發行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上記 兩人이 發見한 新聞의 發行日字와 紙畧으로 미루어 보아, Nouvelles Ordinnaires de Divers Endroits는 La Gazette보다 5個月前인 1631年 1月 初부터 發行되었음이 確實視된다. 이 新聞에는 Jean Martin과 Louys Vendosme이라는 싸인, 혹은 Louys Vendosme이라는 싸인만 있었다.

La Gazette以前에 다른 定期新聞이 發行되고 있었다는 學說을 뒷받침하여 주는 또 다른 考證이 法學教授인 Marguerite Boulet에 의하여 이룩되었다. 그는 파리의 印刷人·書籍商人·製本業者組合의 管理人들이 1634年 10月末 王顧問委員會에 提出한 請願書를 發見하였던 바, 이 請願書의 目的은 Renaudot와 그의 新聞에 認定된 獨占的 特許의 취소와 請願者들에게 自由로운 新聞發行을 許可해줄 것을 請願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特記할만한 事項은 『Théophraste Renaudot는 La Gazette의 最初發行人이 아니며, 그 創刊者는 Vendosme로써, Renaudot보다 훨씬 前에 이미 파리에서 이 新聞을 發行하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이 請願書는 Renaudot와 Vendosme 등의 出版業者 사이에 1631年 9月부터 1635年 2월에 걸쳐 있었던 訴訟關係를 說明하여 주는 것인데, 王顧問委員會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持하였던 Renaudot는 法院의 判結을 물리치고, 1635年 2月부터는 王으로부터 받은 特許張에 의하여 名實共히 프랑스의 唯一無二한 獨占的 特權을 누렸다. 그러나 訴訟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Vendosme은 그의 新聞發行을 계속하였다 (Dahl은 1632年과 1633년에 發行한

(27) Charles Ledré, op. cit., p. 31.

新聞을 發見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1631年 1月 初에서 적어도 1633年까지는 發行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²⁸⁾

위에 소개한것이 Hatin의 學說을 부정한 Folke Dahl, Petibom, Boulet의 共同研究인 「프랑스 新聞의 出現」의 골자이다. 이 共同研究에 의하여 프랑스인에 의한 最初의 定期週刊新聞은 La Gazette가 아니라, Nouvelles Ordinnaires de Divers Endroits라는 것이 考證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뉴스의 量과 質, 國內외의 광범위한 뉴스源 등을 비교하여 볼 때 La Gazette가 훨씬 더 우세한 것은 事實이나, 그렇다고 定期性和 印刷複製라는 近代新聞으로서의 特性을 살려, La Gazette보다 5個月 前에 創刊되어 數年間 계속 發行된 Nouvelles Ordinnaires de Divers Endroits를 프랑스 最初의 定期週刊新聞이라는 것을 부인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筆者는 La Gazette以前에 定期週刊新聞이 數年 동안 파리에서 發行되고 있었음을 Folke Dahl(外 2名)의 考證을 빌어 설명하였다. 이 최초의 定期週刊新聞이 廢刊되고, La Gazette의 독무대가 계속 되었다는 事實은 民意의 획일화라는 Richelieu의 言論政策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28) Charles Ledré, *op. cit.*, pp. 27~30